

최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함의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국방비는 지난 20년간 매년 두 자리 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같은 국방비 증가를 기반으로 중국은 재래식전력 뿐 아니라 핵무기, 항공모함, 우주무기체계 등 첨단 전략무기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네트워크화, 첨단화, 우주화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아직도 선진국과 최소한 10년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중국은 2020년경에 역내에서 우월하고 배타적인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으로서 주목할 만한 현상인 것은 분명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군의 발전방향과 군사력 증강추세가 한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나 갈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으로서도 당분간 주변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에 진력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북핵 위기 및 한국과의 잠재적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군사적 개입을 통한 해결 시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자극받아 우리도 군비증강을 추진하기보다는 방어적 억제전략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검토의 필요성
- 2. 중국의 대외안보환경과 군사전략
 - 가. 대외안보환경 인식
 - 나. 군사전략
- 3. 중국의 군사력 증강 현황
 - 가. 국방비 증액 추이
 - 나. 군사력 증강 현황
- 4. 평가 및 고려사항

1. 검토의 필요성

-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등장 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군사전략의 변화 ▲첨단무기체계 확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구체화되는 추세
 - 특히 중국은 09년 4월 칭다오(淸島) 앞바다에서 세계 군사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대규모 해군 열병식을 거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건국 60주년을 맞아 군사퍼레이드를 거행하고 첨단무기체계를 과시
-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G2시대'에 걸맞은 강대국으로서의 부상을 보다 확고히 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미국과의 전략적 긴장 관계를 보다 가시적인 차원에서 고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일본과의 해상영유권분쟁, 대만문제에 의한 양안(兩岸)간 긴장고조, 북한 핵개발에 따른 동북아 안보 불안정 속에서 지역의 전력 균형을 깨고 역내 군비경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존재
 - 아울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평화로운 안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중국정부의 주장과 달리 ASEAN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게 새로운 안보위협이라는 불안요인으로 다가서고 있음.
-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후 미국에 필적할 수 있는 잠재적 패권국으로 급속히 부상 중인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중국에 대한 기존의 경제력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중국의 군사력 현황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본격화 할 경우 한중관계의 긴장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군사전략 및 군사력 증강에 대한 분석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중국의 대외안보환경과 군사전략

가. 대외안보환경 인식

- 후진타오 시기 중국은 대외안보환경에 있어서 ▲아태지역에서의 미·일·호주 군사동맹 강화 ▲국가이익 확대에 따른 해상보급로 안전문제 ▲주변국과의 영토주권문제 ▲북한 핵문제 등이 역내 안보를 불안하게 만드는 새로운 도전과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동시에 중국은 후진타오 시기에도 여전히 안보위협 최대 요인으로 주권과 영토수복 대상인 대만(臺灣)을 지목하고 있으며 미국의 對대만 군사장비판매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미국의 MD계획이 중국의 핵(核)역지력에 도전하고 결국은 대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의 對대만 재래식 미사일 능력의 우위 확보 노력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판단
 - 비록 대만에서 2008년 5월 마잉지우(馬英九) 정권이 출범한 이후 對대만 전략이 평화모드로 전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양안관계 및 미중관계 변화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라 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은 최근 수년 사이 미국과 일본이 기존의 미·일·호 3국간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의 서쪽에 접경한 인도를 끌어들이므로써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인도 등이 참가하는 군사훈련은 2007년 4월 처음 실시되었지만, 미국과 인도, 일본과 인도 등 양국간 군사적 협력은 이미 2006년부터 본격도에 오른 상태
 - 이에 따라 중국은 2001년 자국 주도로 결성된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간의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고 결속을 다지는 등 미국 주도의 아태지역 안보협력에 적극 대응하고 있음.

군사력 증강은 지역의 전력 균형을 깨고 군비경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존재

중국의 안보전략은 경제성장, 주변국가와 관계안정, 대만통일을 중요목표로 하고 있어.

○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국가안보전략 목표는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 유지 ▲국경지역 및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안정 ▲대만통일 등 세 가지의 기본적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이러한 세 가지 안보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이며, 미국과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 국가안보전략의 최우선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후진타오 시기 중국과 팽팽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안보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유일한 나라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으로서 이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호전적인 행동에 기인함.

나. 군사전략

○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국방정책은 대내외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軍)을 현대화하고, 이를 통해 국토 및 주권의 수호, 해상권의 보호, 국가통일 유지, 안전한 외부환경을 도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한편 중국의 군사전략은 기본적으로 외부침입으로부터 영토의 보전과 통일이라는 역사적 요구로부터 출발하며, 방대한 영토와 상이한 전장 환경으로 인해 다차원적인 군사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여 왔음.

○ 중국 건국 초기의 군사전략은 ‘인민전쟁론’으로서, 이는 자국의 최강 전쟁요소인 인력과 국토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장기적 소모전과 전면전을 전제로 미국과 소련의 대중국 침략을 방어한다는 전략

- 인민전쟁론의 핵심은 시간을 벌기 위해 공간을 양보하다가 마침내 가상적(미국, 소련, 일본)을 격멸한다는 게릴라전 수행에 있으며 저기술 무기의 다량확보와 대규모 병력의 유지가 필수요소
- 그러나 인민전쟁론은 개혁개방에 따른 국제정세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병력, 조직, 무기감축 등 군의 현대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1970년대 말 이후 쇠락

○ 개혁개방 이후 중국 군사전략의 핵심은 조기전, 전면전, 핵전에 대비한 전력태세에서 국경지역의 소규모 분쟁 및 제한적 국지전에 대비한 ‘유한국부전쟁(有限局部戰爭)’ 전략으로 전환

- ‘유한국부전쟁’ 전략은 1985년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상정하는 미래전은 초강대국의 대륙침략이 아닌 주변국이 연루된 국경지역 내외에서의 국지전을 의미
- 중국군이 규정하는 국지전은 한국전쟁(1950), 베트남전쟁(1979), 걸프전쟁(1991)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중국은 현재까지 ‘유한국부전쟁’에 기초한 현대전 경험이 없으나 이 전략은 중국군 현대화의 근간을 형성

○ 한편 중국지도부는 걸프전쟁의 영향으로 인해 미래전의 성패가 첨단 군사기술의 획득 및 운용에 있다고 판단하여 1993년 ‘첨단기술 조건하 국부전쟁(高技术條件下的局部戰爭)’ 전략을 채택

- 이 전략은 특히 대만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주요한 고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군 현대화는 대만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적 수단의 확보 및 미국의 對대만사태 개입 저지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
- 또한 이 전략은 지상군의 신속대응능력, 해군의 적극적 근해방어 능력, 공군의 원거리 투사능력, 핵·미사일 전력의 기술수준 제고 등 전반적 군 현대화의 기본 독트린으로 작용

○ 후진타오(胡錦濤) 시기에 들어 중국은 정보전 능력과 중국적 특색의 전략 결합을 강조하는 미래의 새로운 전장 운용개념으로서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信息化條件下局部戰爭)’ 전략을 새롭게 주장

- 이 전략은 여전히 제한된 국부전쟁을 상정하고 있지만 미래의 적은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고도의 무기체계와 인공위성에 의한 정찰능력, 나노기술 등을 보유한 강대국일 것으로 상정

후진타오 시기에는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쟁 전략’이 새로이 등장

- 정보화시대의 군사전략은 전통적 수단을 포함하여 ▲우주전 능력 ▲사이버전 능력 ▲심리전 능력제고 ▲C4ISR체계 구축 ▲항공모함 구비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으로 수행
-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군사전략은 1993년 제시된 ‘첨단기술조건하 국부전쟁’ 교리와 2004년에 『국방백서』를 통해 제시된 ‘정보화조건하 국부전쟁’ 교리가 혼재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결국 후진타오 시기 중국의 군사전략은 ‘기계화’와 ‘정보화’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서구의 정보화에 편승하고 따라잡겠다는 ‘도약(跨越)식’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1〉 중국 군사전략의 변화

시기	주요사건	군사전략	비고
건국초기 (1949-1952)	한국전쟁 (1950-1953)	인민전쟁전략	인민전쟁전략의 한계성 인식
1차5개년 계획 (1953-1957)	중·소 우호조(1950) 중·소 국방신기술 협정(1957)	인민전쟁전략의 후퇴와 현대화·정규화사상 대두	소련의 적극적 지원 군사제도에 의한 개혁 시도
대약진운동 (1958-1965)	금문·마조도(1958) 중·인 국경분(1962) 핵실험성공(1964)	인민전쟁전략으로의 복귀	중·소관계 악화 모택동 혁명화 강조 인민전쟁 복귀 핵무기계획 추진 정규화노선 대두
문화대혁명 (1966-1976)	중·소 국경분(1969) 임표사건(1970)	현대적 조건하 인민전쟁	모택동 군중노선 추진
개혁·개방시기 (1980년대)	중·월 전쟁(1979)	유한국부전쟁전략	등소평/개혁파 등장 국경지역의 소규모 국지전 대비
1990년대	걸프전쟁(1991) 코소보전쟁(1999)	첨단기술 조건하 국부전	첨단무기체계 및 고도의 군사과학 기술이 운용 되는 지역전 대비
21세기 초	아프간전쟁(2001) 이라크전쟁(2003)	정보화 조건하 국부전	첨단무기체계 및 고도의 군사정보 기술이 운용 되는 미래전 대비

3. 중국의 군사력 증강 현황

가. 국방비 증액 추이

- 중국의 국방비에 대한 평가는 군사력과 현대화의 추세 및 군사적 의도를 파악하는데 있어 필수적 요소이나 기본적으로 중국은 국방예산의 투명성이 낮고 관련자료 및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태
 - 중국은 자국의 국방비가 미국의 5.69%, 일본의 56.78%, 영국의 37.07%, 프랑스의 75.9% 수준이며, 실제 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질적 전력국방비는 전체 예산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
 - 그럼에도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후 매년 평균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효과가 군사력 강화로 확실히 전이되기 시작
-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국방비는 서방세계에서 발표하는 국방비 체계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지난 10년간 연도별 국방비 증액 추이는 〈표 2〉를 참조
 -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국방예산은 일반적인 운영유지비 항목이며, 무기 구입비나 연구개발비와 같은 전력 증강비는 타 분야 예산에 은닉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분석됨.
 - 1989년 이래 지난 20년간 중국의 국방비는 매년 두 자리 수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첨단무기 수입, 신기술의 연구개발, 대규모 병력유지와 국방현대화 등을 추구하고 있음.

〈표 2〉 중국의 연도별 국방예산 증가 현황

구분	1999	2001	2003	2006	2007	2008	2009
국방비	억불	129	174	228	350	438	515
	위안(元)	1,046	1,410	1,850	2,838	3,555	4,178
전년대비 증가율(%)	14.5	17.6	9.8	20.4	19.4	17.6	14.9

출처: The Military Balance 및 중국국방백서.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어.

○ 최근 미국 국방부는 『중국군사력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의 국방비는 1989년부터 2005년 사이에 10 배가 증가했으며, 2009년에는 다시 2005년 국방비지출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전망함.

- 오늘날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재래식전력 뿐 아니라 핵무기, 항공모함, 우주무기체계 등 첨단 전략무기체계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따라서 중국의 급격한 국방비 증액과 군 현대화 추진은 그 발전 추세에 따라 향후 2020년경에는 적어도 역내에서 현재보다 훨씬 우월하고 배타적인 군사력을 지니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이는 중국이 기존의 재래식전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향후 10년 내에 항공모함 보유를 통한 군사력의 장거리 투사(projection capability)가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는 전제에 따른 것임.

나. 군사력 증강 현황

○ 중국 지도부는 세계 2위 경제력에 걸맞은 군사력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중국 본토에 대한 접근 거부능력 ▲정밀타격능력 ▲핵억지력 ▲원거리 공정작전능력 등의 강화를 위한 군사력 증강을 추진중임.

- 이를 위해 중국군은 ▲다양한 신형무기 생산 및 배치 ▲외국 무기 및 군사기술 도입 ▲각종 미사일 생산 ▲신속대응능력 제고 ▲정보전/전자전 능력 배가 등에서 최근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음.

○ 중국군(人民解放軍)은 이미 국가수립 이전 공산당에 의해 창설된 ‘黨의 군대’로서 정권창출 및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정치·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

- 약 180만 명에 이르는 중국의 육군은 7개의 大軍區와 24개의 集團軍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集團軍은 서방의 軍團에 해당하는 부대단위로서 3-4개의 사단과 특수화 부대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에서 육군의 ‘신속대응군’은 보다 작고 다양한 규모로 운영되며, 韓半島와 臺灣의 유사사태 대비를 주 임무로 하는 제남군구 54집단군의 162사는 1993년에 육군사단에서 ‘쾌속반응부대’로 개편되었음.

※ 중국군의 경우 여단은 약 3,000-4,000명, 사단은 약 12,000-15,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대응을 위한 ‘쾌속반응부대(快速反應部隊)’는 국방자원 배분과 장비지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점유

○ 한편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해군력으로서 중국 해군은 연안해군에서 탈피해 태평양과 인도양의 일정 범위에 대한 해양통제를 염두에 둔 ‘이양(二洋)전략’에 대비하는 해군으로 발전 중

-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하는 등 대양해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계획의 완료 시 활동범위는 미군의 서태평양 기지가 있는 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美국방부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은 이미 위협적 수준으로서 핵잠수함을 포함 최소 60척 이상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3척씩 첨단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은 핵(核)전력의 증강에도 힘을 기울여 이미 상당한 억지력을 갖춘 상태이며, 2008년『국방백서』에서는 핵무기 선진기술이 만족할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어 신형 핵무기개발 연구를 중단한 것으로 발표함.

- 그럼에도 중국은 잠수함 탑재 핵전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바, 자체 개발한 진(晉)급 잠수함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사정거리 8000km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취량(巨浪)II’를 구비하고 있음.

최근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하는 등 대양해군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추진

- 중국 공군은 주로 러시아로부터 기술이전과 무기 획득을 통해 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공중급유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무인정찰기를 구비하는 등 작전반경을 확대하는 데 있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 현재 중국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 전투기는 제4세대 기종인 Su-27SK, J-11(Su-27의 중국내 면허생산본), Su-30MKK 등이며, 러시아는 중국에 무기체계 및 플랫폼 이전 외에도 각종 노하우를 제공
- 또한 중국은 제2포병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고 확실한 반격능력을 키우고 있으며, 중국의 반격능력은 ICBM, SLBM, MRBM, IRBM 및 폭격기 등으로 구성되고 3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 이 가운데 사정거리 1만km가 넘는 동평-31A는 핵탄두 3기를 탑재한 채 직접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으며, 美항공모함을 목표로 하는 사거리 1500km의 지대함 크루즈미사일(ASCMs)이 실전배치를 앞둔 상태로 파악됨.
- 아울러 중국은 우주무기체계의 개발에도 힘을 기울여 지나 2007년 1월에는 지상에서 KT-1계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우주공간의 인공위성을 격추하는 반위성무기(ASAT)실험에 성공함.
 - 중국은 이외에도 위성용 방해전파발신기, 레이저무기 등 다양한 우주무기개발은 물론 독자적인 위성항법시스템(北斗)을 구축하고 있으며 우주군사전략수립 및 우주군대의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표 3〉 중국의 대표적 신형무기

신형무기	개발과 배치상황	제원과 성능	비고
094형 진(晉)급 전략잠수함	현재 2척 배치, 4-5년 내 4척 추가배치	핵탄두탑재 사거리 8000km 취랑(巨浪)-2 미사일 12기 탑재	094, 093형 핵잠수함을 비롯해 잠수함 69척 보유
항공모함	2015년까지 재래식 항모 2척, 2020년까지 원자력항모 2척 보유 추진	4만 5000톤급의 경우 전투기 40대 이상 탑재가능	
J-13, J-14 전투기	2015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	작전반경 1500km 이상, 스텔스기능 보유, 항공모함에 탑재가능	2006년 최신편전투기 J-10개발완료, 이미 65대 실전배치
동평(DF)-31 미사일	2005년 실전배치	사정거리 1만 2000km, 미국본토 타격 가능	

4. 평가 및 고려사항

- 중국은 개혁개방정책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군사력이 강대국화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에서 중국지도부의 군사력 증강 의지는 당분간 불변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기존의 방어적이고 제한된 지역에 대한 전쟁을 상정하던 것에서 벗어나 세계 및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공세적인 성격의 첨단군사력 확보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갈등의 소지를 낳고 있음.
- 후진타오 시기에 중국의 군사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배경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민족주의의 강화 ▲중국군부의 전문화 ▲미국의 개입전략에 대한 대응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후진타오시기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군사력 증강의 주요한

중국지도부의 군사력 증강 의지는 당분간 불변할 것으로 전망

군사력 증강이 한국과의 전략적 경쟁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해야

물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도부가 내세우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민족주의 고조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는 내부적 원동력으로 작용

- 또한 중국군 지도부의 전문화와 전쟁수단 및 개념의 복잡화는 중국군 현대화를 위한 또 다른 배경이 되고 있으며, 9·11사건 이후 미국의 강력한 군사개입 정책 역시 중국의 군사력증강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용

○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네트워크화, 첨단화, 우주화 등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중국의 군사력 수준은 선진국과 최소한 10년 이상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군 현대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중국의 군사력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경에는 선진국과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며 동아시아에서는 우월하고 배타적인 군사력을 보유할 전망

○ 한국으로서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주목할 만한 사안인 것은 분명하나 미국 등 서구국가에서처럼 중국의 군사력 강화를 적대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

- 엄밀한 의미에서 중국군의 발전방향과 군사력 증강추세가 한국과의 전략적 경쟁이나 갈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우리로서는 중국의 전략무기보다 오히려 재래전 능력의 발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국으로서도 당분간 주변국과의 군사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경제발전에 전력을 기울이며, 북핵 위기 및 한국과의 잠재적 영토분쟁에 있어서도 군사적 개입을 통한 해결 시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자극받아 군비경쟁을 시작하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기보다는 방어적 억제 전략에 입각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군사력 증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우리는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의 기초위에서 ▲군사 분야 교류와 협력확대 ▲상호 군사분야 신뢰구축 ▲공동 군사훈련 실시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 먼저 양국 국방장관회담을 비롯한 고위·실무급 교류를 정례화하고, 특히 기존의 국방부와 합참 위주 교류에서 탈피해 육·해·공군 등 각 군(軍)별 실무자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한·중 양국 군사부문 간의 신뢰구축을 위해 한반도에서 실시되는 한·미 공동 군사훈련 및 개방 가능한 군사기지의 참관 등을 시범적으로 초청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중국과의 공동 군사훈련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의 현실성 및 민감성을 고려하여 일단 마약, 테러, 해상조난 등 비전통 안보분야 대응을 위한 훈련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중장기적 군사안보전략은 對중국 적대관계를 상정한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먼저 능동적으로 대중 군사외교의 기본원칙을 수립한 뒤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우리와 영토분쟁에 있어서 군사적 개입을 통한 해결 시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

편집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JPI 정책포럼 현황

- 이병도 『태국의 국내정치 구도의 평가와 향후 전망: 동아시아 협력의 전망을 중심으로』 (2009년 5월)
- 이재현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국의 과제: 한-아세안의 전략적 협력을 중심으로』 (2009년 6월)
- Belashov Volodymyr 『우크라이나 비핵화 모델』 (2009년 7월)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 동향과 전망: 미국의 두 여기자 사건을 계기로』 (2009년 8월)
- 박영준 『일본 민주당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대한반도 정책 전망』 (2009년 9월)
- 최원기 『G20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한국에의 함의』 (2009년 9월)
- 이성우 『북한의 인권현황과 한국의 인권외교정책』 (2009년 10월)
- 조 현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현황과 전망』 (2009년 10월)
- 황지환 『북한의 최근 대내외 인식과 정책방향』 (2009년 10월)
- 조양현 『한·중·일 3국 협력의 현황 및 전망』 (2009년 10월)
- 주장환 『중국의 소수민족문제와 동아시아 평화의 전망』 (2009년 11월)
- 이춘근 『우주 개발: 쟁점과 전망』 (2009년 11월)
- 최장근 『일본 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2009년 12월)
- 조운영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 (2009년 12월)
- 고봉준 『동북아의 '조용한' 군비경쟁과 북핵(미사일) 실험』 (2009년 12월)
- 박원화 『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 (2009년 12월)
- 김영희 『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 (2009년 12월)
- 윤이숙 『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 (2009년 12월)
- 김강일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 (2009년 12월)
- 고주현 『ARTE TV 정책형성 과정과 한중일 공동채널의 가능성 모색』 (2009년 12월)
- 송화섭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2010년 1월)